

# 강진군 월출산 곱벵이농장, 곤충 산업 성공모델로 우뚝서다

## 도단위 기술보급 평가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돼 식용곤충 활용 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 6회 진행

강진군에 위치한 월출산 곱벵이농장(대표 방재남)이 최근 전라남도에서 주최하는 2020년 곤충 양봉 기술보급 사업 평가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월출산 곱벵이 농장은 2020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식

용곤충을 활용한 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6회에 걸쳐 진행했다. 12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곤충 소재의 요리에 대한 대중화를 이끌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평가회는 월출산 곱벵이농장

에서 개최됐다. 시군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농장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곤충분야 기술보급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출산 곱벵이농장은 2015년을 시작으로 5년 만에 100만 마리 사육 규모를 갖춰 연간 3톤에 달하는 곱벵이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500여 팀이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곤충 분야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게 됐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제2, 제3의 곤충산업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식용 곤충에 대한 대중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곤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완도 군외에서 약산까지 산림해양 치유길 열렸다

###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1차년도 사업 완료



완도군은 숲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완도 섬자리 숲길 트

레킹코스 조성'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군민 및 관광객에게 산림휴양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특히 완도군 12개 읍·면의 아름다운 산림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숲길, 마을길, 도실길 등 다양한 유형의 코스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1단계 구간은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5개 읍면이 해당된다.  
주요 구간으로는 군외면 달도(망미산) 약산을 시작으로 완도대교~수목원 수변쉼터~상왕봉 삼거리~초개산~서망산~완도타워~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장보고 대교 하단~약산대교~가사동백해변~당목항에서 끝나는 총 58.6km의 코스가 다.

1단계 구간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과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은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약산 해양치유의 숲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다.  
앞으로 조성될 2단계 구간은 읍면은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청산면이며, 3단계는 노화읍과 소안면, 보길면이 해당된다.  
202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2단계 구간인 금일읍, 금당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완도만의 청정한 환경과 산림해양경관을 활용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국민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완도가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아우르는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 해남군민광장 군민 소통공간 재탄생

### 신청사 완료후 군민광장 새롭게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해남군이 신청사 이전과 함께 해남군민광장도 군민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신청사가 완료되어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 청사 2동을 철거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광장을 새로 조성하게 된다.  
새로운 군민광장은 총 1만 4,000㎡ 면적으로 수성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청사 일원과 기존 군민광장을 연계해 전체적인 공간을 재구성하고 군민들의 소통,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청사와 수성상 사이 구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 넓은 광장으로 조성하며 해남을 상징하는 바다 디자인이 더해진다. 기존 군민광장 구간은 어린이 놀이터와 어른 쉼터, 바다분수, 야외화장실과 함께 군청에 진입하는 첫 관문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성한다.  
야외 공연장 개·보수와 함께 야간경관조명 및 전망관 등 이용자 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총사업비는 58억여

원이 투입되며, 공공조형물 등 디자인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반영 예정이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6월 까지 군민광장 조성 실시설계를 마쳐 신청사 이전 완료와 동시에 광장 조성에 착공, 2022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 및 아이디어 제안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군청사신축추진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청사 및 해남읍성과 어울리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광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군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 청사 신축공사는 건축면적 1만 8,601㎡,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11월 현재 공정을 65%를 보이고 있으며,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공사 중으로, 오는 2021년 6월 준공 및 하반기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장평은빛교실, '내 밥은 내가! 남성요리교실' 2기 개강

### 상반기 시험적 12명 시작 호응 높아 하반기 8회 수업 더해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지원 다음달 16일까지 수·금 수업

장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어르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남성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간단한 일품요리와 밑반찬 만들기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내 밥은 내가! 남성요리교실' 2기를 개강했다.  
김용문 위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사업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시험적으로 수강생 12명과 함께 시작한 남성요리교실이 참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추가수업 요청이 계속되어 하반기 8회 수업을 더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남성요리교실은 수강생

들의 만장일치로 상반기에 강의를 해준 임순희 전문강사(한식기능조리사)가 계속 진행하며, 12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총 8회 수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닭강정조림, 오징어채볶음, 풍나물해장국, 꼬마김밥 등 혼자서도 쉽고 간편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영양식과 오향장육, 구절판, 모듬전, 감바스처럼 함께 나눠 먹기 좋은 별미까지 다양한 요리가 소개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문병욱 장평면장은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남성요리교실을 장평면의 대표 특색 프로그램으로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공식사업 공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